

## 월간양돈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에서 양돈농가 94.7% 응답 -

정리 : 김 동 성

◇…본지는 지난 6월 독자 1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본지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한편, 독자들의 양돈경영에 본지가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았다.

전국에 분포한 본회 회원과 준회원, 축산관계 회사원, 학자, 농장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우편방식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본지가 양돈경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특히 본지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입한 적이 있는 응답자가 78.9%에 달해 광고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지 조사와는 관계없지만 농축수산유통정보에서 양축가 100명을 대상으로 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협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월간지중 충실팀에서 월간양돈이 가장 충실(월간양돈 81.3%, 낙농육우협회보 71.9%, 월간양계 59.1%)한 것으로 조사돼 본지의 설문조사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본지가 이번에 조사한 대상이나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긴 하나 독자들의 의견을 파악하는데는 충분하리라 믿고 있으며, 본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독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보다 알차게 엮어 갈 것을 다짐한다. 본지는 앞으로도 이와같은 설문조사를 자주 실시, 본지가 부족한 점을 메워나가는 한편, 모든 독자들이 본지 편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지에 대한 충고나 제언이 있으면 언제라도 의견을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다루어 줄 것을 약속한다.〈편집자 주〉



### ● 응답자 인적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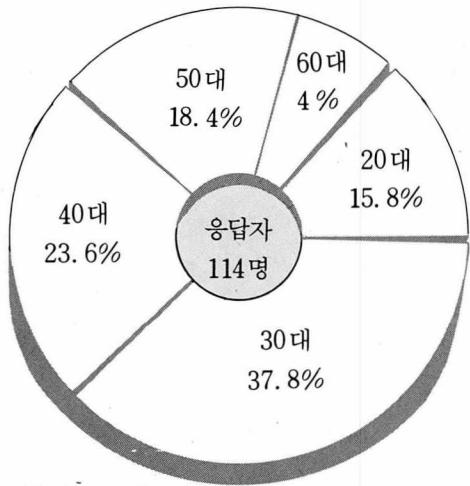
응답자 114명의 연령분포는

△20대 15.8% △30대 37.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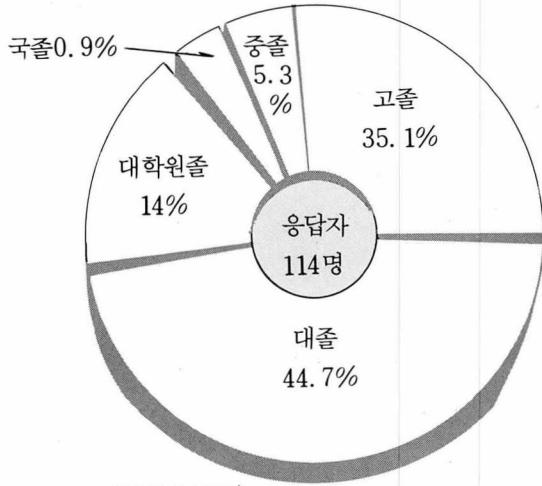
40대 23.6% △50대 18.4% △60

대 4.4%로 30~40대가 주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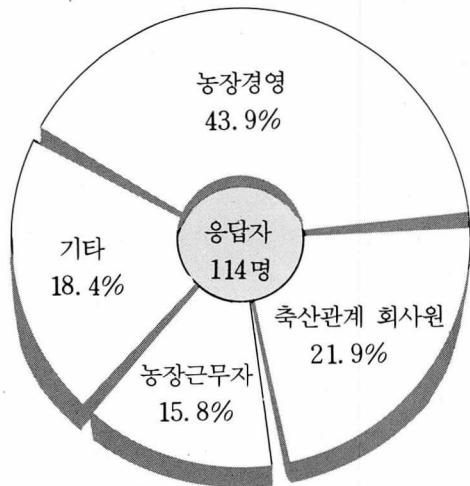
이루고 있으나 20대, 50대, 60대로 분포되어 있어 이번 조사가 어느 한 세대에 치우쳐 있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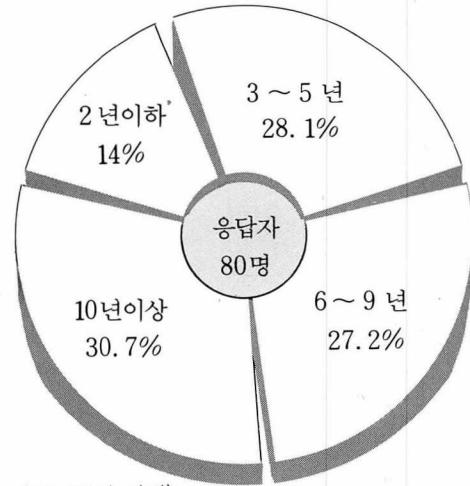
〈응답자 연령〉



〈응답자 학력〉



〈응답자 직업〉



〈양돈종사 기간〉

아 신뢰도와 포괄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응답자의 학력은 △국졸 0.9% △중졸 5.3% △고졸 35.1% △대졸 44.7% △대학원 졸 14%를 차지, 고졸과 대졸이 전체의 80%를 점하고 있었다.

이들의 직업은 △농장경영주 43.9% △축산관계 회사원 21.9% △농장 근무자 15% △학자 10.5% △기타 7.9%였고, 이들의 양돈종사 기간은 △2년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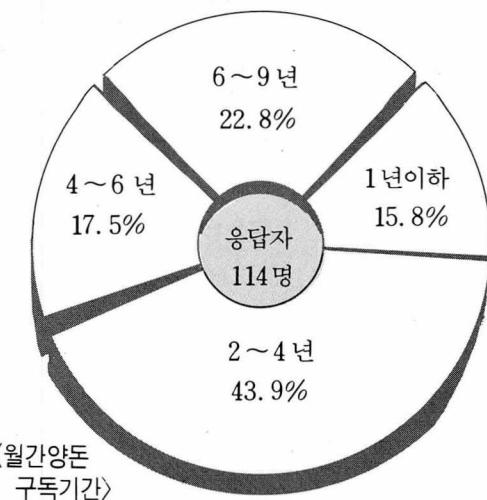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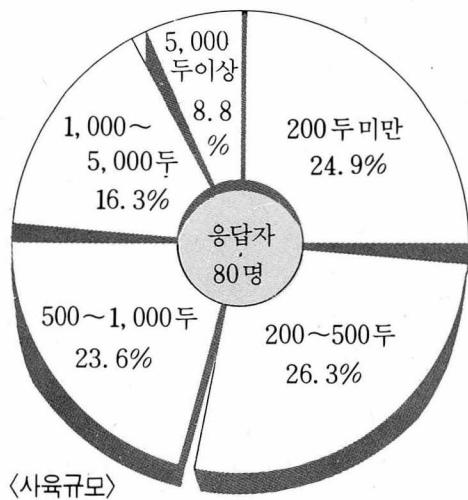
14% △3~5년 28.1% △6~9년 27.2% △10년이상 30.7를 차지, 응답자의 대부분이 장기간 양돈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월간 양돈을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중 농장경영주들의 돼지 사육규모는 △50두 미만 8.6% △50~200두 16.3% △200~500두 26.3% △500~1,000두 23.8% △1,000~5,000두 16.3% △5,000두 이상 8.8%를

점유, 월간양돈이 모든 계층에서 고루 읽혀지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200~1,000두 규모의 전업규모에서 50.1%를 보고 있었다.

또,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40만원 이하 17.5% △40~100만원 56.3% △100~200만원 18.4% △200만원 이상 8.7%였다.

## 월간양돈 설문조사 결과



### ● 월간양돈에 대한 반응

월간양돈 구독기간은 △1년 이하 15.8% △2~4년 43.9% △4~6년 17.5% △6~9년 22.8%로 본지가 창간된지 10년이 된 것을 감안하면, 창간 당시의 구독자가 지금도 상당수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간양돈을 받아보는 유형은 △본회 지부를 통해 받아본다 23.7% △사료·동물약품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받아본다 3.5% △정기구독한다 57% △기타방법이 15.8%로 나타났다.

월간양돈의 본문 활자 크기는 △크다 0.9% △알맞다 92.1% △작다 7%로 활자 크기는 대부분 만족해 하고 있으며, 월간양돈 표지는 △만족스럽다 56% △그저 그렇다 24.6% △바꿔야 한다 15.9% △관심없다 3.5%로 응답, 표지는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다분히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월간양돈을 받아보는 날짜에 대해선 △1일 40.4% △5일 33.3% △15일 4.4% △전달 말일 21.9%로 매월 1일 받아보길 원하는 사람이 많아 현재보다 3~4일 더 빨리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응답자 중 85.1%가 월간양돈을 다른 사람에게 권한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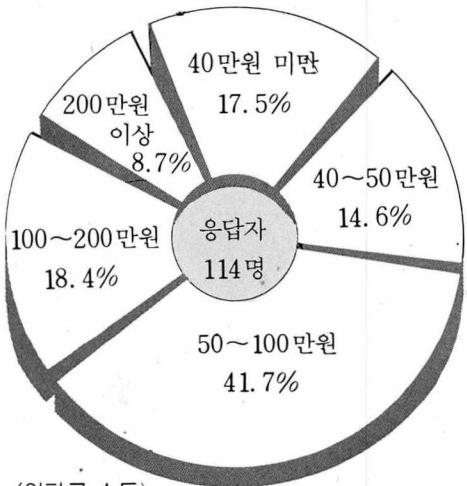
응답자들이 월간양돈을 읽는 방법은 △필요한 부분만 읽는다 57.9% △빠짐없이 읽는다 30.7% △절반정도 읽는다 6.1% △대충 훑어본다 5.3%로 나타나 독자들이 월간양돈을 매우 열심히 읽고 있으며, 양돈 관련 주요정보와 기술을 월간양돈을 통해 주로 입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간양돈에 실린 본문내용의 난이도와 관련, △어렵다 0.9% △읽은만 하다 78.9% △쉽다 19.3% △일정치 않다 0.9로 나타나 월간양돈이 대체로 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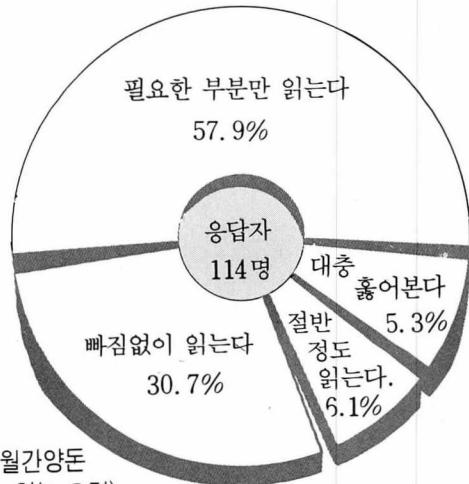
들의 수준에 맞게 편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중점 파악할려고 한 월간양돈이 독자들의 양돈경영에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있느냐는 질문에 △큰 도움이 된다 56.1% △많은 도움이 된다 38.6% △그저 그렇다 5.3%로 월간양돈이 양돈농가들의 양돈경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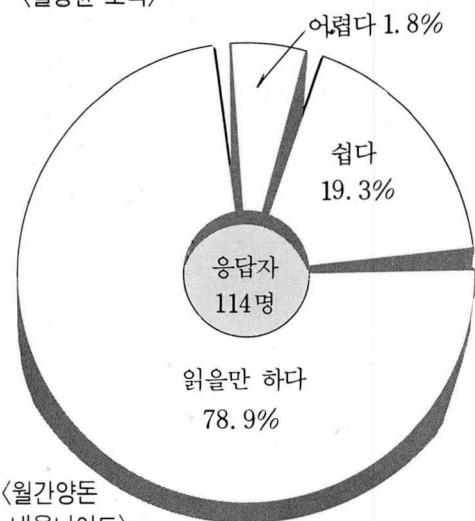
월간양돈에 게재되는 광고가 정보로서 양돈에 도움이 되는냐는 질문에 △된다 95.6% △안된다 4.4%로 나타났고, 월간양돈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물건을 구입한 경험이 있느냐에 대해 △있다 78.9% △없다 21.1%로 나타나 응답자 중 학자와 축산관계 회사원이 32.4%인 점을 감안할 때 농장경영주와 농장 근무자들은 거의 대부분 광고가 정보로서 도움이 되고 있고, 또 광고를 보고 물건을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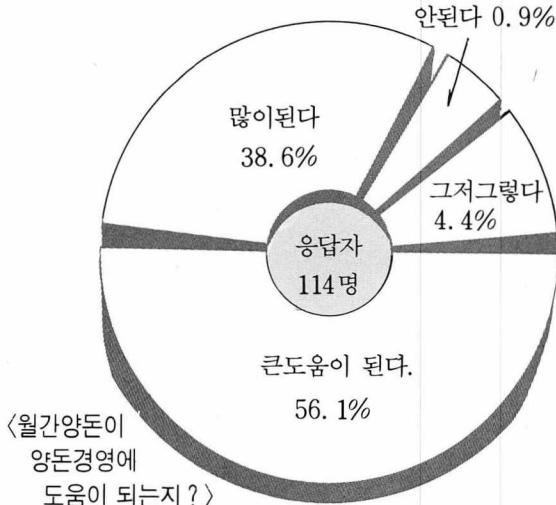
&lt;월평균 소득&gt;



&lt;월간양돈 읽는 요령&gt;



&lt;월간양돈 내용난이도&gt;



한 것으로 분석돼 광고효과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었다.

월간양돈의 광고량은 △ 많다 44.7% △ 적당하다 54.3% △ 적다 0.9%로 응답, 앞으로는 점차 광고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자들은 또 월간양돈에 게재되는 내용 중 유익한 것 세가지만 고르라는 주문에 △ 시설·사양·질병 등 양돈기술분야와 △ 기획특집 △ 협회소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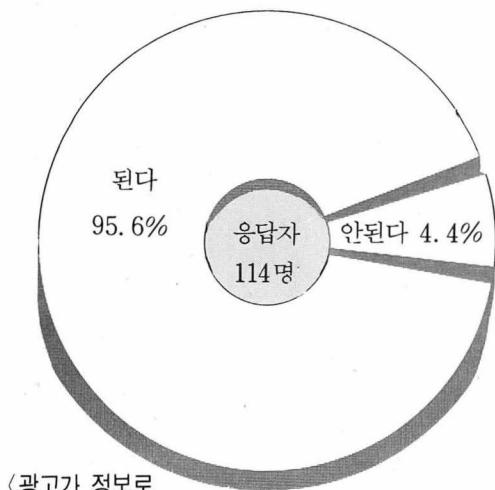
축산정보·업계소식 △ 통계자료 △ 취재기사(지부·농장·심충취재 △ 농민의 자리에서 본다 △ 이달의 촛점 △ 칼럼 △ 특별기고 △ 돈육소비촉진 관련 기사 △ 권투연 등을 적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은 앞으로 월간양돈에 신설하거나 중점 다루어 주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것을 다루어주길 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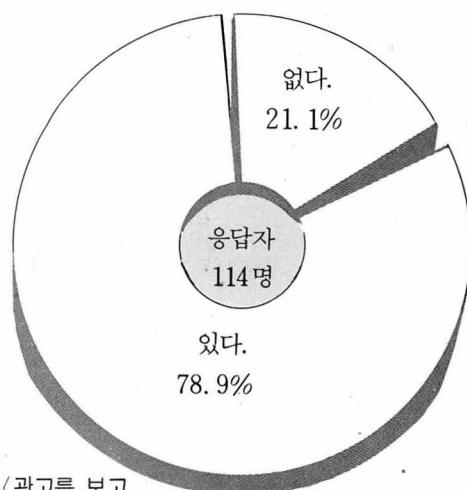
## 1. 양돈 기술 분야

△ 초보자를 위한 내용 △ 육질개량방법 △ 농장경영일지 △ 농장탐방 기사로 좋은점 외에 어려운점과 농장경영 문제점 부각 △ 질병치료는 이론적인 것보다 실제 경험을 한 내용 △ 질병전파의 온상인 가축시장 및 중간상인의 청정화 및 배제 방안 △ 종돈구입방법 △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돈육가공기술 소개

## 월간양돈 설문조사 결과



(광고가 정보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



(광고를 보고  
물건 구입 여부)

### 2. 정책분야

- △ 21세기 한국양돈의 미래상 (경영형태, 돈육소비추이, 돈육 생산량, 육가공분야, 국제경쟁 관계 등)
- △ 장기적인 양돈정책 전망
- △ 축산법 문제점

### 3. 시설·기구분야

- △ 선진국의 돈사시설 및 외국의 양돈정보
- △ 전업·부업규모의 돈사시설
- △ 환기시설 설치방법, 제품선택방법
- △ 규모별 돈사시설 설치방법

### 4. 양돈동향과 가격전망분야

- △ 양돈관측 매월 계재
- △ 지역별 사육동향파악
- △ 사료·동물약품·기계기구 등 관련분야의 생산동향과 가격분석 비교

### 5. 광고분야

- △ 광고에 나오는 물품의 구입방법과 가격표시
- △ 광고는 다양하게 하되 양축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 조사후

광고 계재 △ 삽지는 책의 질을 저하시키므로 삽지광고 뺄 것

### 6. 기타

△ 양돈업계의 현안문제 집중 취재 보도 △ 취재기능을 강화하여 시사성 있는 내용 신속보도 △ 육가공품 다양화 △ 통계자료 △ 대기업 양돈장 규모 △ 전문용어 해설란 신설 △ 외국의 양돈잡지 중 중요내용 번역 △ 다수사육농가보다 전업규모를 중심으로 편집 △ 편집면에서 시각적·공간적 처리 △ 회원란 신설 △ 질의응답란 신설 △ 연재식으로 집중 분석 △ 성공사례·실패사례 △ 계절에 따른 사양·질병·경영관리 매월 계재 △ 설문조사 자주 실시

### ● 조사결과

이번 설문조사 결과 독자들은 대체적으로 월간양돈의 편집내용에 만족을 나타냈으며, 또한 월간양돈에 게재되는 광

고에 대해서도 정보로서 잘 활용할 뿐더러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월간양돈이 광고주들에게 큰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돈을 장기간 운영한 사람들이 계속 월간양돈을 구독하고 있고 또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월간양돈이 양돈경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힌 점은 그 만큼 월간양돈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 하겠다.

반면 독자들은 보다 현장감 있고 시사성 있는 양돈업계의 현안문제를 심층 보도해 주길 원하고 있었으며, 초보양돈경영자들에 대한 배려도 아울러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이번 설문조사를 계기로 나타난 독자들의 지적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좋은 점은 계속 유지·발전시켜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다짐한다. ■